

건강한 속사람 VII.

이벤트 위주의 신앙이 보여주는 불안전함과 위험성

1.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 '경작'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 에덴의 의미 : 하마콤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감을 누리는 장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존재라는 사실이다.

(2) 경작하라 : 신앙의 태도

하나님과 교제를 경작하라.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농부의 마음은 정성의 태도이다. 정성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곧 정성의 마음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선순위의 가치를 둔 마음이다.

(3) 지켜라

다윗의 마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일이다. 침체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마음이다. 모든 일에(생각과 마음) 있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말한다.

2. 영적원리 - 생각과 마음의 '결'

* '결'의 사전적 정의

: 나무나 돌, 살갓 등에서 조직의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 일정하게 커를 지으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

'결'은 사전적 정의처럼 '일정한 모양'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형성된 상태이다. 길과 같다.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일정한 형태를 얻은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서 '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결'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은 보여지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여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인간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1) 생각의 결

(2) 마음의 결

(3) 성품의 결

'결'을 만드는 일은 에덴을 경작하는 일처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짝 치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다. 신앙은 '삶'이다. 하나님은 한 번 참석하고 마는 콘서트가 아니다. 매일의 삶이다.

기도가 강한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일에 대한 '결'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별기도, 특별예배가 아니다. 특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와같은 영적인 행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3. 지속성 - 경작의 태도.

지속적으로 하늘의 생각을 해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영혼에 하늘의 결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마음가짐이 다르다. 지속성을 다른말로 하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핵심은 '가치'의 반복이다. 반복의 이유는 새겨지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5: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였나니

[신명기 6:6-7]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4. 이벤트 위주의 신앙의 위험성

(1) 신앙은 있지만(심겨는 있지만) 뿌리가 약한 상태이다.

바람이 불면 뽑혀진다. 이벤트 때에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밭이 완전히 경작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가시, 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것이다.

(2) 이벤트 위주의 신앙은 이벤트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는다.

이벤트가 끝나면 그로인한 허전함의 유혹 앞에 서게된다. 이것은 원래의 삶 안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 다른 이벤트를 준비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벤트가 이끌어 가는 삶이다.

(3) 이벤트가 끝난 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영적인 힘이 약하다.

한 마디로 불안하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무장해제가 되는 신앙을 말한다.

* '거룩한 긴장(텐션)'의 중요성

: 안식하고 쉼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는 거룩한 '긴장'까지 풀어버리면 안 된다. 사단은 언제나 무장해제 된 영역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단은 우리가 승리를 맛 본 그 다음을 노리고 있다. 여리고 뒤의 아이성의 패배를 기억하라.

(4) '결'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능력이 없다.

성령의 외적능력과 내적충만함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성령의 외적 능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반드시 다시 충전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내면의 충만함을 지켜야 한다.

(5) 비전의 온전한 성취가 어렵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한 번 치루어진 이벤트의 결과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 다윗, 야곱,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삶처럼 과정에서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6) 이벤트 위주의 신앙은 '성숙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을 관계로 알아가지 않는다. 마치 돈 받고 싸우는 '용병'과 같다. 용병에게 싸움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다. 전쟁을 통해 돈만 벌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병은 돈에 따라, 얼마든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광야에 길을 만들라.

(1) 신앙은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에 길과 물이 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생명없는 곳이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온전한 의미이다. 구원이란, 인간의 인생안에 새겨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길'(데레크) - 오솔길을 지속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래야 길이 만들어 진다. 곁이 생겨난다.

(2) 생명을 낳는 영적인 리듬의 형성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참 모습을 알리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표현하면 '떠남으로부터 출발된 여정'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자연계에 간혀있는 아브라함의 인생가운데 초자연계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중심이 바로 '이삭'이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초자연계의 일이다. 초자연계란, 자연계(인간의 경험, 시간, 공간, 이성, 능력 등)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세계를 말한다. 영적인 세계이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다. 이삭은 그 언약의 증표가 될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존재는 인간(자연계)으로 계셨지만, 초자연계(영)의 증표가 된다. 믿음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영적인 결과, 길과, 리듬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길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향력이 '문화'로 일어나는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는 일.

엠포스피어 -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생각과 마음에 만들어지는 일이다. 날마다 경작하라.

(4) 비전의 땅을 날마다 경작하라.

선교를 중심으로 한, 나의 부르심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경작하는 일